

2024년도 국정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서**

2025. 12.

국 회 사 무 처

목 차

1. 국회청사의 안전·보안 강화 및 화재 대응력 제고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1
2. 국회의원 보좌직원의 근무여건을 고려한 보수 현실화 등 처우개선 및 복지제도 강화 방안을 검토할 것	1
3. 국회사무처 직원 및 보좌직원의 시간외근무에 대한 정당한 보수지급을 위한 개선책을 검토할 것	2
4. 국회세종 의사당이 조속히 건립될 수 있도록 하고, 이전 직원의 불편 해소를 위한 정주·교통 여건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3
5. 의원회관 회의실 사용허가 관련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3
6. 국회상시출입증 발급 국회 재직기간 요건을 완화할 것	3
7. 의원회관 의원실별 개별 냉방 도입을 검토할 것	4
8. 국회의장 및 국회사무총장 표창 대상자 수와 비교집단체 배분을 확대할 것	4
9. 국회인권센터 활성화 및 독립성 보장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4
10. 국회사무처 내 공익신고 담당 기구의 설치·운영 방안을 검토할 것	5
11. 에너지 절약 및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한 국회 차원의 로드맵을 마련할 것	5
12. 중증장애인 국회의원에 대한 활동지원인력을 고려하여 의원실 운영비 증액 방안을 검토할 것	5
13. 국회 내 키오스크를 과기부 장애인접근성 기준에 부합하도록 개선할 것	6
14. 장애인의 국회 회의실·기자회견장 등 출입·이용 및 접근성 제고를 위하여 노력할 것	6
15. 기자회견장 수어통역 서비스의 안정적인 제공방안을 마련할 것	7
16. 지속가능발전 인식 제고 관련 교육을 내실화하고, 보좌직원 연수·교육을 강화할 것	7
17. 국회고성연수원 시설 확충 및 어린이 프로그램 신설 등을 검토할 것	8
18. 의정기록과 초과근무 부정수급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	8
19. 의정기록과의 직무 분석·진단을 통해 조직 개편 방안을 마련할 것	9
20. 정보화 관련 용역업체의 사업수행과 인력투입 관련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	9

21. 청사 및 의원회관 내 인터넷 속도 저하, 정보기기 오류 등 개선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9
22. 국회방송의 국정감사 중계 확대를 위해 노력할 것	9
23. 국회방문객을 위한 휴게공간 조성방안을 검토할 것	10

2024년도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시정 및 처리결과
1. 국회청사의 안전·보안 강화 및 화재 대응력 제고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 의정관 무단침입 방지를 위한 보안게이트 설치 등 의정관 전자출입시스템 구축을 완료함.(25.8.) 또한, 무단침입, 배회, 쓰러짐 등 이상행동 감지를 위한 지능형 CCTV 관제 시스템 도입 및 영상관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CCTV 카메라를 증설할 예정이며(26.1.), 국회의사당 기단 및 2층 정문 등에 기존 장비의 오작동 문제를 개선한 레이더 방식의 침입감지기를 교체 설치할 예정임.(26.1.) ○ 또한 국회 각 건물에는 초기화재 대비 소방시설(소화설비·경보설비·피난설비)이 설치되어 있고, 소방시설을 방재실에서 24시간 감시하는 등 초기대응 시스템을 갖추고 있음. 그 외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시로 자체점검 및 외부 소방기술자격업체를 통해 종합점검용역을 상·하반기 연 2회 실시하고 있으며, 필요시 영등포소방서와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있음. ○ 한편, 2026년도 예산에 지하통로를 통한 의원회관 무단 방문 방지를 위한 보안게이트 등 구축, 국회의사당 옥내 소화전·발신기 증설 관련 예산을 반영하였고, 향후에도 국회청사의 안전·보안 강화와 화재 대응력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임.
2. 국회의원 보좌직원의 근무여건을 고려한 보수 현실화 등 처우개선 및 복지제도 강화 방안을 검토할 것	○ 보좌직원의 근무여건을 고려한 보수 현실화를 위해 연가보상비, 운전점임수당 등의 예산 증액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으나 반영되지 않고 있음. - 2026년도 예산안에 보좌직원 ①연가보상일수 확대에 따른 예산 증액(5일→15일, 약 27억 8,600만원 증), ②운전점임수당 증액(월 7만원→15만원, 2억 8,800만원 증)을 요구하였으나 정부안에 반영되지 못하였음.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시정 및 처리결과
	○ 국회사무처는 2025년 예산 요구서에 6급 이하 보좌직원의 호봉 인상분(44억 5,291만원)을 반영하여 기재부에 제출하였으나 미반영된 바 있고, 2026년 예산 요구 시에도 6급 이하 보좌직원의 호봉 인상분(45억 8,714만원)을 반영하여 기재부에 제출하였으나 반영되지 못하였음. ○ 한편, 보좌직원의 기준호봉 인상을 위해서는 관련 예산 반영뿐만 아니라 보좌직원 기준호봉을 규정하고 있는 인사혁신처 소관 대통령령인 「공무원보수규정」[별표3] 개정이 필요한 바, 향후 보좌직원의 급여가 적절한 수준으로 책정될 수 있도록 관련 기관들과 협의하는 등의 노력을 적극 기울일 예정임. ○ 참고로, 국회사무처는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의정활동지원 매식비 6억 6,800만원 및 정책연구활동 매식비 1,400만원을 추가 확보하고, 교섭단체 매식비 1,100만원을 신규 확보한 바 있으며,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사 과정에서 보좌직원 시간외근무수당 확대에 따른 예산 8억 5,000만원이 증액된 바 있음.
3. 국회사무처 직원 및 보좌직원의 시간외근무에 대한 정당한 보수지급을 위한 개선책을 검토할 것	○ 보좌직원 시간외근무수당 정액분 확대를 위해서는 예산 반영이 필요한 바, 국회사무처는 매년 의원보좌직원의 시간외근무수당 예산 증액을 요구해왔음. - 2026년도 예산안에 보좌직원 시간외근무수당 확대에 따른 예산 증액(비운전겸임 33→40시간, 운전겸임 35→57시간, 약 25억 1,800만원 증)을 요구하였으나 정부안에는 반영되지 못하였음. ○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사 과정에서 보좌직원 시간외근무수당 확대에 따른 예산 8억 5,000만원이 증액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예산을 집행할 예정임.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시정 및 처리결과
4. 국회세종의사당이 조속히 건립될 수 있도록 하고, 이전 직원의 불편 해소를 위한 정주·교통 여건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현재 기획재정부와 총사업비 협의 단계에 있으며,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사업 추진에 필요한 후속 절차들을 순차적으로 진행할 계획임. 건립이 지연되지 않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음. ○ 세종 이전 직원들의 정주여건 조성을 위해 국토부·행복청·세종시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으며, 설계공모 발주 이후 보다 실효성 있는 정주·근무 여건 개선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음. ○ 세종 이전 직원들의 교통 여건 개선 관련 사항을 관계 기관과 지속적으로 공유하며, 필요한 사항은 협의해 나가고 있음. - 세종시 내 교통정책 수립 주체는 행복청으로, 현재 자체적으로 용역을 추진 중이며, 상위 교통 정책은 국토교통부의 정책 방향에 따라 행복청에서 연계·반영하고 있음.
5. 의원회관 회의실 사용 허가 관련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 「국회의원회관 회의실 및 로비 사용 내규」 개정(24. 11. 14.)을 통해 회의실 운영 자문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 근거를 두는 등 회의실 사용허가의 객관성 및 공정성 등을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함.
6. 국회상시출입증 발급 국회 재직기간 요건을 완화할 것	○ 2023년에 상시출입증 발급기준의 재직기간 요건을 완화한 바 있음.(20년 → 15년) 「국회청사출입에 관한 내규」에 따라 상시출입증을 발급하고 있음. ○ 발급 기준 변경을 위해서는 내규 개정이 필요하며, 재직기간 요건의 추가적 완화에 따른 청사 출입관리 및 보안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회출입관리심의회에서 지속적으로 검토하겠음.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시정 및 처리결과
7. 의원회관 의원실별 개별 냉방 도입을 검토할 것	○ 국회는 「탄소중립기본법」에 따라 매년 온실가스 목표 설정 및 감축 의무가 있으나, 개별 냉난방기를 도입할 경우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가 예상됨. ○ 또한, 정부 권고 및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라 국회 청사 등 모든 공공건물은 적정 실내온도(냉방온도 26℃ 이상, 난방온도 20℃ 이하)를 준수하여야 함. ○ 의원실마다 개별 냉난방기를 설치하더라도, 전기사용량 및 탄소배출량 증가 억제를 위해 중앙제어로 의원실마다 냉방온도 26℃ 이상 설정 및 운영시간 제한 등을 적용·운영할 경우에는 현재 중앙공급식 냉방과 큰 차이가 나지 않을 수 있음. ○ 다만, 노후화된 냉동기를 교체(25. 10.)하여 냉방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하였고, 폭염경보·장마 시 온도 및 가동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절하여 실내온도 관리를 하고 있으며, 향후 지속적인 냉난방설비 유지관리를 통해 쾌적한 환경을 조성 하도록 노력하겠음.
8. 국회의장 및 국회사무총장 표창 대상자 수와 비교섭 단체 배분을 확대할 것	○ 2025년도 국회개원기념포상(25.5.)부터 국회의장표창, 국회 사무총장표창을 각 10매씩 추가 수여하고 있음. - 국회의장표창 42매→52매, 국회사무총장표창 48매→58매 ○ 2025년도 국회개원기념포상(25.5.)부터 비교섭단체 의석수 비율을 반영하여 비교섭단체 직원 포상을 실시함. - 국회의장표창 1매, 국회사무총장표창 2매
9. 국회인권센터 활성화 및 독립성 보장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 인권센터 업무 수행의 독립성 제고 및 운영 내실화를 위하여 「국회인권센터 운영규정(안)」이 2025년 연내에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향후 업무량 변동 추이 등을 고려하여 인력 증원 등 조직 확대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임.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시정 및 처리결과
10. 국회사무처 내 공익신고 담당 기구의 설치·운영 방안을 검토할 것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공익신고 기관은 ①공익침해행위자의 대표자, ②공익침해행위 조사·감독기관, ③수사기관, ④국민권익위원회(이상 법§6), ⑤국회의원(영§5 ①) 등으로 지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12조(공익신고자 비밀보장 의무)에서는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을 신고자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 ※ 국회의원이 공익신고를 접수한 경우 ②~④의 기관 중 어느 하나에 사건을 이첩하고 그 사실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함(영§5 ②,③). ○ 따라서 이러한 현행법령 상 체계를 고려할 때 국회의원에게 접수된 공익신고의 조사기관 송부 행위, 조치 사실 통지 행위 등 행정처리를 국회사무처가 대신하여 수행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 다만, 국회의원실에서 공익신고를 하려는 사람을 대상으로 공익신고 접수 및 처리절차, 신고자 구제, 포상제도 등을 원활히 안내할 수 있도록 매뉴얼 배포 등의 방안을 검토하겠음.
11. 에너지 절약 및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한 국회 차원의 로드맵을 마련할 것	○ 국회사무처는 포괄적·체계적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연구용역을 실시(24.11. ~ 25.5.)하여 「국회 탄소중립 로드맵」을 수립·공표한 바 있음.(25.6.17.) ○ 향후 재생에너지 설비 구축 및 건물에너지 성능 향상 등 로드맵 이행을 위한 사업 추진을 통해 국회 에너지 절약 및 온실가스 저감 노력을 지속하겠음.
12. 중증장애인 국회의원에 대한 활동지원인력을 고려하여 의원실 운영비 증액 방안을 검토할 것	○ 의원실 지원경비는 원칙적으로 균등배분하여야 할 성질의 경비이나, 의정지원활동 매식비, 정책현안 현지출장비, 업무용 택시비의 경우, 중증장애인 국회의원의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1명의 활동보조요원 당 예산의 10%를 추가 지원하고 있음.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시정 및 처리결과
13. 국회 내 키오스크를 과기부 장애인접근성 기준에 부합하도록 개선할 것	○ 「장애인 차별금지법」 제15조 등에 따라 무인정보단말기 설치·운영 시 장애인에게 동등한 접근성과 이용편의를 제공해야 함.(기존 기기에 대한 의무 적용시기 : 26.1.28.) ○ 이에, 장애인 이용편의 제고를 위해 법적 의무 기한 도래 전 직영 후생시설 8개소(카페 6개소, 식당 2개소)에 배리어 프리 키오스크 설치를 완료하였음.(25.10.) - 과기부 장애인 접근성 기준을 반영하여 음성안내, 화면 높이 조절, 점자 패드 등의 기능을 탑재함. ○ 또한, 과기부 접근성 검증기준 등을 충족하는 의원실 위치 안내기를 제작 중이며, 25. 12. 교체 완료 예정임.
14. 장애인의 국회 회의실·기자회견장 등 출입·이용 및 접근성 제고를 위하여 노력할 것	○ 국회의원회관 대·소회의실의 장애인석 확충(28석→58석, 30석 추가 설치) 및 장애인석 로고매트 설치(25.12. 완료), 휠체어 이용자를 위한 강연대 비치(25.10. 완료), 본관 제1회의장 개선공사 실시(25.3. 완료) 등의 조치를 하였음. ○ 또한 ‘장애인 이동·활동에 필수적인 인력’이 기자회견장 배석자 제한 인원(9인)에 포함되지 않도록 하여 장애인 출입·이용 접근성을 개선하였고,(24.10.10.) 기자회견에 참석하는 장애인의 이동, 발언 및 시설 이용 등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내규에 신설하여 향후 장애인의 기자회견장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대비하였음.(25.1.22.) 「국회기자회견장 운영에 관한 내규」 (2025.1.22. 개정) 제11조(장애인에 대한 편의 제공) ① 사무총장은 기자회견에 참석하는 장애인의 이동, 발언 및 시설 이용 등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 2026년도에 다양한 장애유형을 고려한 장애인 편의시설 점검 및 개선방안 제시를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할 예정이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장애인 이용 불편 해소 및 접근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음.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시정 및 처리결과
15. 기자회견장 수어통역 서비스의 안정적인 제공 방안을 마련할 것	○ 기자회견은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이 국민에게 의정활동 메시지를 전달하는 주된 수단으로, 서비스의 안정적인 제공을 위해 기자회견 수어통역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내규에 신설하였음.(25.1.22.). 「국회기자회견장 운영에 관한 내규」(2025.1.22. 개정) 제11조(장애인에 대한 편의 제공) ① (생략) ② 사무총장은 청각장애인에게 기자회견에 대한 원활한 정보 제공을 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어통역을 지원할 수 있다. ○ 또한, 수어통역사 고용방식 개선 등을 위한 연구용역 결과와 국회 프리랜서 고용개선 간담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종합하여 2026년 수어통역사를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직접고용하기로 결정하고 관련예산을 확보하여 2026년도 채용을 준비중에 있음. ○ 기자회견 수어통역은 청각장애인의 알권리 보장과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홍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므로, 앞으로도 기자회견장 수어통역 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음.
16. 지속가능발전 인식 제고 관련 교육을 내실화하고, 보좌직원 연수 교육을 강화할 것	○ 지속가능발전 인식 제고 관련 교육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였음. - 2025년도 국회 최고위과정 시즌2 「기후위기와 인구위기」(25. 6.~7. 매주 목요일 총 4회) - 「국민참여 정책강연」 “지구는 괜찮아, 우리가 문제지”(25.9.) - 「신임관리자·실무자과정」 8개 강의 (기후위기와 ESG경영,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국가 재정의 미래와 대응 방안 등) - 「국장급·과장급 역량강화과정」 2개 강의 (정책결정과정에서의 ESG, 대한민국의 인구변동과 미래대응) ○ 보좌직원의 연수 강화를 위해 국내 공공·민간기관 교육과정 교육비를 지원하는 “입법지원서비스능력개발과정”을 운영하였고(대상 50인→60인으로 확대), 외국 의회·연구기관 방문 지원 프로그램인 “보좌직원 단기해외연수과정”을 운영하였음.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시정 및 처리결과
	○ 신규 임용 보좌직원 대상으로 ‘기본교육’(25년 12개 강의)과 보좌직원의 직무에 특화된 ‘전문교육’(25년 13개 강의)을 실시하여 보좌직원의 교육을 내실화하였고, 보좌직원 설문조사 및 보좌직원협의회와의 협의를 통해 강의 편성 및 강사 선정에 관한 의견을 청취하여 교육 실수요자의 수요에 부응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편성하였음. ※ 보좌직원 대상 교육 수요 설문조사 실시(25.11.3. ~ 11.12.)
17. 국회고성연수원 시설 확충 및 어린이 프로그램 신설 등을 검토할 것	○ 국회고성연수원 시설확충을 위해 관련 연구용역을 실시하였고(24.12.~25.7.), 이용객을 위한 객실 및 유아놀이방, 실내체육시설 등 복지시설 확충과 관련하여 연수원 시설 증축에 대한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실시함.(24.12~25.8.) ○ 향후 시설 증축 예산이 반영될 경우 설계 과정에서 실 사용자를 위한 시설의 확충과 어린이 프로그램 신설 방안 등을 검토할 예정임.
18. 의정기록과 초과근무 부정수급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	○ 부정수령 행위자 58명을 적발하여 예외없이 징계·서면 경고 조치, 부정수령액 원금 및 가산금(5배) 국고환수 조치, 6개월간 초과근무 금지 등 엄정하게 조치하였음. ○ 향후에도 초과근무수당 부정수령 등 부적정한 운영이 발생하지 않도록 장·단기 개선방안을 추진·검토 중임. - 각 청사 출입구에 퇴청기록기를 설치하고(6개소 청사, 10대 기록기), 초과근무 신청자(5급 이하)는 근무종료 후 퇴근 시 기록기에 공무원증을 태그하여 퇴청시간을 기록하도록 개선(24.12.31. 사무총장 명의 회보 시행) - 현재 추진 중인 초과근무시간 관리시스템 개선사업을 통해 초과근무 신청 시 본인 인증 절차를 강화하고, 시작시간 입력 및 개인용무시간 제외 기능 등을 도입하여 초과근무 대리입력, 사적용무 후 입력 등 허위·부정한 초과근무 발생을 방지하는 시스템을 구축·시행할 예정(26.2. 시스템 오픈 예정)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시정 및 처리결과
19. 의정기록과의 직무 분석·진단을 통해 조직 개편 방안을 마련할 것	○ “속기환경 변화에 따른 국회 의정기록과 직무분석” 용역을 실시하였고(24.11.22.~25.2.21.),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의정기록과의 중장기 조직개편 방향을 검토할 예정임. ○ 또한, AI기술 발전과 기록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회의록 작성 방식을 포함한 조직혁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내부적으로 의정기록연구TF를 구성하여(25.7.) 국가별 음성인식 도입 사례 또는 회의록 작성방식 등에 대한 조사를 완료함. 향후 주요 외국 의회와 우리 국회를 면밀히 비교·분석하여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음.
20. 정보화 관련 용역업체의 사업수행과 인력투입 관련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	○ 인력중복투입 용역업체에 대하여 조달청에 요청하여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6개월) 처분을 하였음. ※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 25.9.12. ~ 26.3.11. ○ 사업 진행 중 수시보고를 통해 인력 투입 상황을 점검하고 있으며, 사업수행인력 중복 투입 방지를 위해 국회 도서관 등 국회 소속기관 간 정보화사업 수행업체 선정 현황을 공유하고, 제안요청서에 참여인력 중복 투입 방지에 대한 요구사항을 상세화 하는 등 관리·감독을 강화하였음.
21. 청사 및 의원회관 내 인터넷 속도 저하, 정보기기 오류 등 개선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 의원회관 인터넷망 서비스 대역폭 증속(800Mbps → 2.5Gbps)을 추진 중(25.12. 현재 입찰공고)으로, 개별 사용자 최대 속도도 증속(60Mbps→100Mbps) 예정임. ○ 정보기기 민원을 유형별로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정보기기 및 소프트웨어 제조사와 관련 민원 공유·협력체계를 강화하는 등 민원 관리체계를 강화하였음.
22. 국회방송의 국정감사 중계 확대를 위해 노력할 것	○ 국회방송은 매년 국정감사 중계, 특히 유튜브생중계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해왔으며, 실제로 중계횟수(비율)를 확대해가고 있음.(TV는 채널이 1개만 있으므로, 동시에 여러 개가 열리는 국감을 중계하기 위해서는 유튜브생중계 확대 필요) - 국정감사 유튜브생중계 횟수와 비율(전체 국감횟수 대비 중계횟수) : 23년(107회, 81%), 24년(114회, 81%), 25년(116회, 88%)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시정 및 처리결과
	○ 인터넷의사중계가 안되는 외부 국감에 국회방송 중계팀 우선 배정, 피감기관 자체 중계 안내 및 독려 등으로 가능한 많은 국감을 중계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음. ○ 특히 한 개의 위원회가 분반으로 나뉘고 오전·오후로 장소도 바뀌는 지방국감까지도 최대한 많이 중계할 수 있도록, 피감기관의 자체 중계 안내 및 독려, 국회방송 중계팀 파견 확대를 위한 인력·장비 확보 등을 위해 노력하겠음.
23. 국회방문객을 위한 휴게공간 조성방안을 검토할 것	○ 방문객 휴게공간 마련을 위해 국회의사당 본청 후면에 방문자 정보검색대를 설치하였음.(24.10.17.) - 본청 후면 1층 출입구 인근 모니터-데스크톱 일체형 PC 3대 설치 완료. ※ 3대 중 1대는 장애인 및 노약자의 원활한 정보검색을 위해 전용 책상에 별도 설치함. ○ 앞으로도 적정규모의 공간, 이용률, 주변 경관과의 조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회 방문객의 편의성을 제고하도록 노력하겠음.

